

지계 - 좋은 습관 들여 청정함 살리는 길



“계율은 어렵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으며 우리의 생활속에 있다”며 지계의 생활력을 강조하는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

01 계율은 불교의 윤리와 도덕이며, 부처님의 교육관입니다. 아이의 습관과 버릇을 잡는 가정교육과 같은 것이지요. 계는 행동과 언어로 악을 짓지 않도록 방지하고, 율은 부처님 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허물과 악을 억제하고 조복하여 대중에 수순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고 행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을 지니고 나쁜 습관을 버려 청정한 마음과 계행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몸·마음으로 실천해야 살아있는 계율

계율은 불법이 오래 세상에 머물기를 바란 사리불의 청요로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명예와 이익에 끌리게 되면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잘못된 일을 범한 것이 없다. 떨어지지 않은 새 옷을 미리 꿰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여래는 때를 알고 있으니, 모든 비구들은 이 계율을 의지해서 수행하라.” 하시고 “입으로 말조심, 생각하고 나쁜 짓 하나 없이 세 가지의 하는 것이 모두 깨끗하면 이렇게 두는 것이 열반의 길이라”라는 계승을

을였습니다. <능엄경> ‘제6 수도분’ 가운데 설치계칙과(攝持軌則科)에 출가자와 재가자가 지켜야 할 율으로써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음란하지 말라, 둘째 홀치지 말라, 셋째 살생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자가 몸으로 외현적인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뜻으로 범하는 것까지 금하셨습니다. 출가자에게 있어 몸과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불음(不淫)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는 정해진 배우자 외에는 부정한 남녀의 애정관계를 갖지 말라는 불사음(不邪淫)입니다.

불사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는 물질화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있어버리고 인간 자체를 물질로 보는 것이지요. 가장 적나라한 예가 성의 상품화입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성의 노리개로 전락되어 금전으로 매매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따라서 ‘불사음’ 계는 재가자에게 문란한 성관계를 금지토록 한 개인의 수신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문제에 국한시켜서는 해결책이 구해지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인간 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내야 합니다.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체의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녀야 할 계율이 불음·불사음계입니다.

“살생은 자비의 종자 끊는다”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홀치지 말라’입니다. 이는 불교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쟁의 업보 때문에 두고두고 갚아야 한다는 <능엄경>의 부처님 말씀은 이 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윤리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것 역시 사회적인 가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육심내어 내 것만을 고집한다거나 다른 이의 공을 취하는 것 등도 무도(偷盜)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고루 나눠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일으키고, 이 욕심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성을 내고 홀치고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정당하게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는 것, 다른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⑥
 주제 : 경전속의 지계정신 (9월 10일)
 법주 : 철우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이의 공공을 외면하고 혼자만 살아가려는 탐욕 등도 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란 하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무수한 중생이 직·간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받는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남보다 잘 사는 사회라면 올바른 사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은 개인 차원의 소극적 금계가 아니라, 일체 생명의 가치가 제한 없이 발휘되는 세계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여 보다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가르침이지요.

그러나 작은 나에 탐착하여 일체 생명의 고귀함을 망각하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살생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다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 상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즐기 위하여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고 맛을 위하여 도살을 하는 등 인간의 율포는 끊어 없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온갖 살상용 무기가 양산되고 이윤을 위해 몸에 해로운 상품을 만들어 팔고, 공해 산업이 우리의 숨통을 쪼여 오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일체 생명의 내부에 깃든 부처님 성품에 대한 가증스런 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불량어(不妄語)는 대망어라 하여 깨닫지 못한 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노자는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하여 말로는 진실을 드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를 도라 하면 이미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온갖 언어를 매개체로 삼아 우리의 뜻을 전하지요. 그러면서도 말이 가진 한계를 느끼지 않고 전능의 권위를 부여하거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메스미디어의 발달은 온갖 정보의 홍수를 가져왔으나 진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물어요. 오히려 유언비어가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짓을 말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찌 한 말을 오를 뒤집어 버리고 만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자세

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로써 폭력적인 언어를 정화해야 하고, 진실된 말로써 부처님의 말씀과 뜻을 담아내야 합니다. 신구의(身口意)의 삼밀(三密)에서 구밀(口密)이 바로 이 뜻입니다. 진실된 말이 가득한 세상,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불자들은 계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율은 어렵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아요.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불자 모두의 일입니다. 일부 전공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자라면 음당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이유가 없지요.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살아있는 계율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경전에는 계율을 잘 지키면 열 가지 이익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승가를 거두어 주고, 둘째 승가를 기쁘게 해주며, 셋째 승가를 안락하게 해줍니다. 넷째 믿음이 없는 이는 믿게 하고, 다섯째 믿음이 있는 이는 더 깊게 하고, 여섯째 조복하기 어려운 이를 조복하여 수순하게 하고, 일곱째 부끄러워하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여덟째 현재의 번뇌를 끊고, 아홉째 미래의 번



불자들은 철우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계율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법회 동영상 중계 homy.buddhopia.com/homepy/morals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3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9월 25일(일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 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업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일 시 : 2005년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음, 8월 22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조재) : 양력 9월 25일 (음, 8월 22일)
- 3재 : 양력 10월 9일(음, 9월 7일)
- 기도외향(막재) : 양력 11월 6일 (음, 10월 5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당)
- ※ 위폐비, 아가웃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 7세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편육을 합니다. (매계적삼, 양말, 신발, 경단강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에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기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문 안장 02)3391-8523 / 011-9002-8523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 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업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아로하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향적당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제조 및 판매: **☎선농BIO식품(주)** 전국 소지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철우 스님의 제안

삼귀의와 오계는 불자의 기본조건입니다. 진정으로 삼보에 귀의하지 않거나 계를 지킬 자신이 없다고 하여 가려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모든 계를 받으려면 계제(戒體), 다시 말해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계를 지니기에 앞서 불교 법문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삼귀의가 이루어지면 다음에 오계를 받아 지나야 합니다.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飲酒) 불사음(不食五辛)으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정종자(淸淨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배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불사음(不邪婬)으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정종자(淸淨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정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 불망어(不妄語)로 '거짓말 하지 말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진실종자(眞實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음주(不飲酒)로 '술을 마시지 말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혜종자(智慧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베풀며 청정하고 진실하며 지혜롭게 살라

둘째, 불투도(不偷盜)로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지 말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복덕종자(福德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배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불사음(不邪婬)으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정종자(淸淨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정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 불망어(不妄語)로 '거짓말 하지 말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진실종자(眞實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음주(不飲酒)로 '술을 마시지 말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혜종자(智慧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철우 스님은 9월 10일 동화사 동일기원대전에서 열린 여섯번째 계율수행 대법회에서 "불자들이 지계정신을 가져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법론했다.

너를 끊고, 열번째 정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계는 불자의 선택인양 의무

이 열 가지 이익을 요약하면 개개인의 수행을 위하여, 교단을 청정을 위하여, 또 중생의 이익과 인권을 위하여, 정법이 영원히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계율이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법을 영원히 머무르게 하고 더욱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계율이 지켜지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조차 없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천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계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요즘, 계율을 현대사회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1결집때 이루어

진 율장정신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계율을 바꿔서는 안됩니다. 만약 율장에 있는 것이라면 청규를 만들면 됩니다. 율장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시대에 맞는 청규를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철우 스님은 1957년 청도 적천사에서 출가, 6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68년 해인총림 율원을 수료했다. 90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계맥을 이었다. 현재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머 조계종 계단위원회 위원, 단일계단 구족계 존중이사리, 제18회 단일계단 유나, 법계위원회 시행위원, 의제실무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사분율> <사미율의> <사미니율의> <승갈마> <식차마니제본> 등 다수 있다.

논찬

잘못 했을때마다 계 만든 부처님 뜻은 '자비'



덕문 스님 (파계사 강원 학장)

질문1 : 계사 스님들은 '않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파할지라도 계를 받는 데 무한한 공덕이 있다'며 수계를 권합니다. 가능한 계를 범하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계율을 엄정히 지키게 하는 것이 계율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계법(還戒法)에 대해 알려주세요.

철우 스님 : 계율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함으로 해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할 때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아요. 계율은 죄를 짓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계를 어렵게 보지 말고 생활 속의 수행으로 이해하세요.

만약 계를 범했다면 그 즉시 참회를 하고, 다시 계를 받으세요. 계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겼을 때 진정한 참회와 함께 지계를 재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계수행입니다.

환계라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환계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계를 받았다가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환계를 합니다. 절에서 단기를 출가하는 날 계를 받고 집에 돌아갈 때는 환계를 하는거지요. 그러나 평생 계를 어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막6일 사찰수련대회를 할 때 회향하는 날 계를 줍니다. 속세로 계를 어기러 가는 사람에게 계를 주는 셈이지요.

질문2 : <4바라이>에서 말하는 불살생과 <능엄경>의 4중율에서 언급된 불살생의 의미, 그리고 4바라이에서 말하는 불망어와 사중율에서 언급된 불망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수행자들이 율장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우 스님 :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4바라이의 불살생은 재가자가 지켜야할 계율로,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시켜서 죽이지 않으면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아도 그 또한 계를 어기는게 아니지요.

그러나 4중율에서의 불살생은 몸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살생까지도 금하는 환대립의 의미의 계율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율의 목적입니다. 계율은 범했다 해서 벌을 받는 식의 단순한 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계를 받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계율의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 범주스님께서 직접 계율을 공부하시고, 수지하시는 과정에서 체험하신 부분 가운데 후학들의 심신과 정진에 도움이 될 내용을 들려주세요.

철우 스님 : 스님들에게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출가한지 10년 쯤 되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오지요. 나의 첫 번째 권태기는 구족계를 받을 때였습니다.

해인사에서 계를 받았는데, 자운 스님이 비구 계본 책을 주시면서 그것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권태기여서였는지 안 외웠지요. 그랬더니 자운 스님께서 계를 받고 싶으면 3천배를 하라고 해요.

나는 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동기인 도반도 못받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3천배를 해야 했는데 할 일이 막막해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밤때를 알리는 종소리가 가장 반가운 소리인줄 알았는데, 그 날은 새벽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그렇게 코를 꿴 것처럼 계를 받았습니.

그런데 해인사 율원에서 공부하면서 율장을 접하게 됐습니다. 율장을 보지 않았으면 부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도 먼저 규약부터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계를 제정하면서, 계를 제정토록 만든 이들을 자비롭게 용서했습니다.

중생의 자비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니까 그런 것이란걸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계를 받지 않았다면 중노릇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과 생각해 직업 선택을...과보 반드시 따라



인양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질문1 : <범망경>에서는 출가자를 중심으로 하여 불사음, 불투도, 불살생, 불망어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계의 마지막에 있는 불음주가 <범망경>에는 빠져 있고 나머지 네가지 계의 순서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스님 : 제 말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완전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망경> 보살계는 대승계이고, 재가오계는 기본적인 수행덕목입니다. 차이가 없을 수가 없지요. 대승보살계를 엄정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 가능합니다. 재가불자가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오계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목이 있는데, 대승보살계는 술을 팔지도 말라고 했어요. 경전에 술 한 잔 권했던 인연으로 오백생에 손 없는 과보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승보살계는 술을 먹지 말라는 계가 없는 것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술장사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범망경> 계목이 우리 문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질문2 : <범망경>에서는 육식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초기경전에서는 조건부(3정육, 5정육)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스님 : 부처님이 5정육을 허용한 것은 병자에 한해서입니다. <사분율>에 병든 비구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극단적인 견해를 지녔던 제바달라의 식견으로는 5정육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율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를 보면 이해가 쉬울거예요. 계는 중생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

질문3 : 'くだ는 살생과 관련한 직업은 갖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불자 중에는 횡집을 하는 등 생업으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을

니다. 생활의 방편으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철우 스님 : 생업으로 횡집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과를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살생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어렸을때 시장에서 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오목가마 늘 보았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눈에서 핏기가 돌아오.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변하고 맙니다.

악연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과보를 좋게 받는 수행의 방편이 바로 지계입니다. 다시 말해 양심적으로 사는거예요. 생업을 하되 항상 자비한 마음을 가지세요.

단, 스님들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됩니다. <사분율>에 의하면 안 먹는 것이 맞아요.

재가불자도 오계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재가불자들은 스님이 계를 어기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계정신을 늘 가져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Bamyeosa Seolsendaebop Hui Beomun Set). It features a collection of 500 cassette tapes and CDs, priced at 30,000 won (free shipping). The set includes 10 sets of 10 cassettes and 1 set of 10 CDs. The publisher is Mahamall (www.mahamall.co.kr) with contact number 02)732-1520. The set is available for purchase from September 21st to October 31st.

Advertisement for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Korean Buddhists for the 3rd Special Dharma Gathering of the Dalai Lama). The event is held at Daramsara Namgyal Monastery in Daegu. It features a special dharma gathering by the Dalai Lama, including a lecture on the 'Four Noble Truths' and a Q&A session. The event is held from September 21st to October 31st. The publisher is Silkroad (주) Silkroad, with contact number 02)720-9600. The set is available for purchase from September 21st to October 31st.